

기아 ‘쏘렌토’ 지난해 내수시장 가장 많이 팔렸다

9만5040대로 신차등록 1위...2위 카니발·3위 산타페 순 수입차 26만 3천대 전년비 2.9% 감소...테슬라 모델 Y 1위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등록된 신차는 기아 ‘쏘렌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 등록 상위 10개 차종은 모두 현대차그룹 모델이었으며, 수입차량은 테슬라의 ‘모델 Y’였다. 아울러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자동차 전문 리서치 기업인 카이즈유에 따르면 2024년 국산 신차 등록대수(승용+상용)는 전년보다 6.3% 감소한 136만7561대로 집계됐다. 국내 차량 브랜드 중 기아가 49만7051대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았고, 현대가 43만9460대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제네시스(13만1185대), KGM(4만6998대), 르노코리아(3만7822대), 쉐보레(2만4291대) 순이었다.

차종별(승용차)로 살펴보면, 기아 쏘렌토가 9만5040대로 1위에 올랐다. 쏘렌토는 전년보다도 12.6% 늘어난 등록 대수를 기록하면서 2위인 기아 카니발(8만2309대)을 크게 앞질렀다. 3위는 현대 싼타페로 7만8609대가 등록됐고, 이어 기아 스포티지(7만2980대), 현대 그랜저(7만2730대) 순으

로 많았다. 6~10위는 기아 셀토스, 현대 쏘나타, 현대 아반떼, 현대 투싼, 기아 레이로 상위 10위 모두 현대차 그룹 모델이었다.

상용차에서는 현대 포터2가 5만9020대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은 2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테슬라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작년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6만3288대로 전년(27만1034대)보다 2.9% 감소했다.

지난해 베스트셀링 모델은 테슬라 모델 Y(1만8717대)였고 BMW 520(1만2352대)과 메르세데스-벤츠 E 200(1만540대)가 2위와 3위에 올랐다. 지난해 신규 등록 수입차 가운데 하이브리드차(HEV)가 연료별 비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 한 해 꾸준히 강세를 보여온 HEV는 13만4426대(51.1%)가 팔려 처음으로 연료별 등록 대수 1위를 차지했다.

가솔린차(6만2671대·23.8%)는 2위로 내려왔



기아 ‘쏘렌토’.

았고 전기차(4만9496대·18.8%),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9174대·3.5%), 디젤차(7521대·2.9%) 순이었다. 브랜드별로는 BMW(7만3754대)가 메르세데스-벤츠(6만6400대)를 제치고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제작된 8년 만에 1위를 탈환했던 BMW는 벤츠



테슬라 ‘모델 Y’.

와의 격차를 2023년 698대에서 7345대로 벌렸다. 이어 테슬라(2만9750대), 볼보(1만5051대), 렉서스(1만3969대), 도요타(9714대), 아우디(9304대) 순이었다.

다만 전체 판매량과 세부 모델에서 BMW에 뒤졌던 벤츠는 E클래스 전체 판매량(2만5937대)이

BMW 5시리즈(2만697대)를 앞서는 자존심을 쟁겼다.

국가별 브랜드 판매량은 유럽 19만6219대(74.5%), 미국 4만879대(15.5%), 일본 2만6190대(9.9%) 순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퍼펙트 스톰’ 맞아 기본기 바탕으로 위기에 대처하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년사 “첫 외국인 CEO, 혁신 향한 의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6일 “퍼펙트 스톰”을 맞아 비판적 태도를 경계하고, 기본기 바탕으로 위기에 대처하자”고 당부했다.

현대차그룹은 6일 경기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그룹 신년회를 개최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이날 신년회 첫 무대는 정 회장이 직접 열었다. <사진>

정 회장은 지난 2023년 남양연구소, 지난해 기아 광명 이보플랜트에서 열린 신년회에도 직접 참석해 임직원에게 새해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현재 상황을 퍼펙트 스톰으로 정의한 후 “앞으로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피해 갈 수 없는 도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불확실성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위기가 없으면 낙관에 사로잡혀 안이해지고, 그것은 그 어떤 외부의 위기보다 우리를 더 위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올해도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할 여유가 우리에게 없었지만 우리에게 닥쳐올 도전들로 인해 비판주의적 태도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겪어왔고, 훌륭하게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며 “퍼펙트 스톰과 같은 단어들은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의지를 고취하는 역할을 해야지 비판주의에 빠져 수세적 자세로 혁신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러한 위기를 면밀한 준비와 기본기, 혁신을 향한 굳은 의지, 국적·성별 등을 가리지 않는 실력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해 온 것처럼 면밀하게 준비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단순히 위기 요인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콘텍스트, 역사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 기회의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러면서 “위기의 대응에는 그 무엇보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며 “객관적인 분석과 총합적인 대응을 끌어내는 내부 논의, 설정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결, 목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 유연하고 개방적인 내부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올해 현대차 첫 외국인 CEO가 선임된 것과 관련해선 “혁신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적, 성별, 학력, 연차와 관계없이 오로지 실력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14~20일 상반기 기술인력 채용

생산·유틸리티 관리 등 3개 부문

현대차는 오는 14~20일 상반기 기술인력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부문은 자동차 생산, 연구개발(R&D) 기술인력, R&D 유틸리티 관리 등 3가지다. 지원 자격

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모집 부문별 세부 요건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합격자는 오는 2월 중순 발표한다. 2월 말 인·적성 검사, 3월 1차 면접, 4~5월 최종 면접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부문별로 5~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자동차 생산 부문 합격자는 6월과 7월 두 차례로 나눠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 생산 현장에 배치한다. R&D 기술인력 및 유틸리티 관리 부문 합격자는 6월 중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현대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개성과 역량을 가진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네시스 GV60

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1분기 중 판매 개시”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6일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GV60의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을 공개했다. <사진> GV60은 제네시스의 최초 전용 전기차로 2021년 10월 출시됐다.

이번 모델의 외장은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바탕으로 강인하면서 모던한 이미지가 더해졌다고 제네시스는 설명했다. 전면부 범퍼는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형상으로 새롭게 디자인됐고 헤드램프에는 높은 밝기를 구현하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MLA) 기술이 적용됐다.

측면부에서는 21인치 신규 휠이 장착됐고 후면부에선 차체 색상과 동일한 디자인의 스키드 플레



이트(차체 하부 보호판)가 모던하고 견고한 느낌을 준다. 실내 디자인은 하이테크 감성과 여백의 미에 방점이 찍혔다.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고 크래시패드(중앙 디스플레이, 수납구 등을 감싸는 틀) 상단부를 일체화해 더 넓

어 보이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사용감을 한 층 높인 3-스포크 스티어링 휠도 장착됐다.

제네시스는 “1분기 중 상세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기·수소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종료

올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까지도 2년 연장되고 감면 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기한도 2년 연장되긴 했지만, 그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정부는 제작된 6월 종료됐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30%)를 제시행한다. 이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분이 대상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전기차가 2년, 전기수소차가 3년 연장됐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연장 없이 지난달 31일부로 혜택이 끝났다.

이 밖에 다자녀 양육자 구매 차량, 국가유공자 취득 차량, 장애인용 자동차, 경형 자동차, 여객운송사업용 버스·택시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연장됐다.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조건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면제, 2자녀 가구는 50% 감면받는다.

환경 관련 규제에서는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과 승용차 평균 연비·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됐고 저공해 운행지역 지정에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봉고 45주년 ‘스마트 셀렉션’ 트림 출시

기아 광주공장서 생산하는 봉고가 출시 45주년을 기념해 ‘스마트 셀렉션’ 트림 라인으로 출시된다. <사진>

6일 기아에 따르면 LPG 터보 1t 스마트 셀렉션은 5단 자동변속기와 하드 서스펜션을 기본 탑재했다. 스프링 강성을 강화한 하드 서스펜션은 화물 운송 시 발생하는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험로나 미끄러운 노면에서 안전한 주행을 돕는 자동차어 잠금장치도 기본 장착됐다.

상위 트림으로는 LPG 터보 1.2t과 EV 1t이 있다. LPG 터보 1.2t은 최고 출력 159마력(PS)에 최대 토크 30kgf·m을 내고 EV 1t은 1회 충전 시 211km를 주행한다.

기아 관계자는 “45년간 국내 소상공인들의 동반자였던 봉고가 이번 스마트 셀렉션을 통해 더욱 실속 있는 선택지가 됐다”며 “합리적인 가격대로 더 많은 고객이 봉고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벤츠, 중대형 SUV 신규트림 4종 출시

디자인·파워트레인 다양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6일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라인업인 GLC와 GLC-GLE 쿠페, GLS에 디자인과 파워트레인(동력계)을 다양화한 신규 트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규 트림은 GLC 300 4MATIC 아방가르드, GLC 300 4MATIC 쿠페 아방가르드, GLE 450 4MATIC 쿠페(가솔린), GLS 450 4MATIC(가솔린) 등이다. GLE 450 4MATIC 쿠페는 이달 중 인도가 시작되며, 다른 3종은 지난달 출시됐다. 이로써 GLC 및 GLC-GLE 쿠페, GLS 등 벤츠의 중대형 SUV 4개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는 트림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났다.

이번 신규 트림은 모두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공통으로 탑재했다고 벤츠는 설명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 추가 출력을 지원하며, 저공해 차량 2중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더해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플러스, 헤드램프의 발광다이오드(LED)가 개별적으로 제어돼 교통 상황에 따라 램프의 범위와 모양이 조절되는 어댑티브 상황등 어시스트 플러스도 기본 탑재됐다.

자세한 사항은 벤츠코리아의 64개 전국 공식 전시장 및 벤츠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